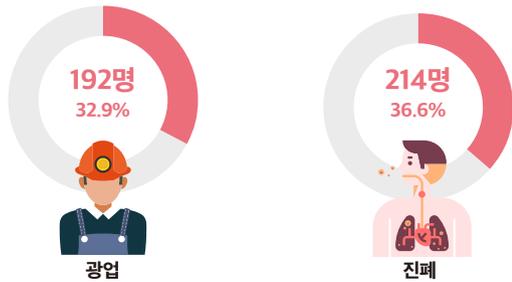


진폐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

업무상질병 내 가장 큰 비중

2023년 상반기 최대 업무상질병 사망자는 진폐로 나타났다. 총 214명(36.6%)이 진폐로 사망했으며 광업 종사자 사망자 수는 192명이었다. 이는 놀라운 수치도 아니다.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4년 동안 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총 207,019명으로 그중 진폐를 앓다가 사망 또는 요양 받은 사람은 약 41,000명

2023 상반기 산업재해 질병사망자 최대 발생 유형



출처 : 고용노동부, 2023년 1~6월 산업재해 현황

이었다.¹⁾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석탄 광업이 침체하면서 국내 진폐재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광부진폐재해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사망자는 늘고 있다. 이는 진폐재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기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²⁾ 반면 최근에는 제조업에서도 진폐증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1989년 12.7%, 1995년 27.2%, 2000년 20.9%로 늘어나는 추세다.³⁾ 진폐재해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유해인자의 종류 및 관리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재가진폐재해자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

재가진폐재해자는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탄광 내 석탄을 캐 실어 올려보내면 지상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석탄 분류 및 깨는 선탄부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당시 탄광 직원 중 선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로, 여성 진폐재해자가 전체 5,203명 중 150명으로

2022 업무상질병 업계별 진폐재해·사망자 현황 (단위 : 명)

업계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업	총계
진폐재해자	627	342	1	191	11	1	1	3	30	472
진폐사망자	373	58	0	30	6	0	0	0	5	1207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산업재해현황분석

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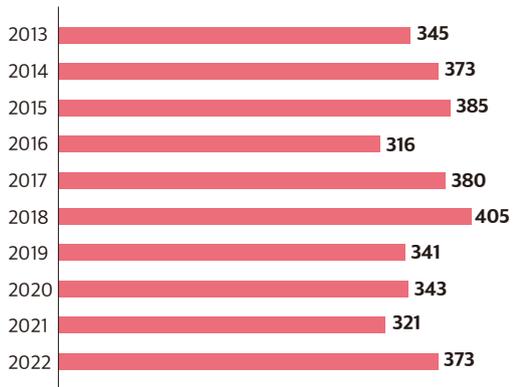
2) 황주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발병기전연구부, <진폐환자에서 연도별 활동성 폐결핵 유병률과 현황 조사의 필요성> (한국산업보건학회지, 제33권 제2호), 2023

3) 고용노동부, 대한산업보건협회 2001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선탄부가 지하 탄광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상 연관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다. 현재는 탄광 내부 근무 경우 근무기간 10년 이상이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으나, 탄광 외부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이 15년 이상 돼야 한다.

3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진폐재해자⁴⁾ 중 입원요양환자는 3천여 명뿐이다. 결핵,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등 아홉 가지 중 하나를 합병증으로 앓거나 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어야 입원요양이 가능하다. 지원을 확대한다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진폐 판정조차 받지 못해 자비로 치료하는 탄광노동자가 아직도 무수하다. 나아가 1년에 한 번 받는 ‘진폐 정밀검진 진당수당’은 올해로 14년째 동결로 2010년 법률 개정 이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다. ‘진단수당’은 무급 및 진폐의증인 진폐재해자가 2박 3일간 정밀검진을 받으면 1일 5만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연간 6,000~6,500명 규모다. 진폐재해자를 위한 처우 개선이 매년 나오는 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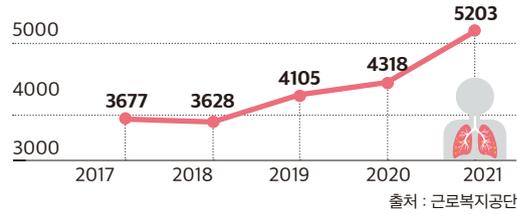
전국 광산 부문 진폐증 사망자 (단위 : 건)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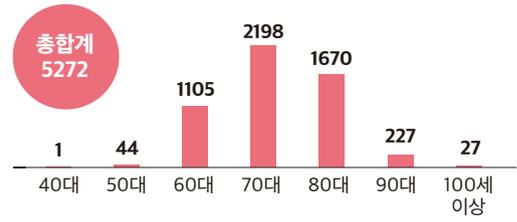
4) 고용노동부 인정 1만 7천여 명
 5) 최병순, <한국의 석탄광업에서 발생한 진폐증의 실태>, 대한산업의학회지, 1996
 6) 천용희, <이직 탄광부에서의 진폐증 발생률>, 대한산업의학회지, 2000
 7) 근로복지공단, 2022년 강원도 내 진폐 현황 조사 결과, 2022

강원도 내 진폐재해자 수 (단위 : 명, 1~13급, 의증자)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22년 강원도 내 진폐증 및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자 연령별 현황



출처 : 근로복지공단, 2022년 10월 기준

매년 늘어나는 진폐사망자

진폐증은 분진에 노출된 지 5~20년 경과 뒤 발 견,⁵⁾ 분진 노출이 중단된 뒤에도 진폐증 발병률 은 10.3%에 이른다.⁶⁾ 진폐증 평균 잠복기가 9.8 년 수준인 점을 고려, 또한 매년 전국 광산 부문 진폐사망자가 약 300~400명인 것으로 보아 진 폐사망자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탄광개발 붐으 로 많은 이들이 탄광지역인 태백, 정선, 삼척, 영 월에 정착했던 티라 강원도 내 진폐재해자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강원도 내 진폐재해 자 수는 총 5,272명으로 전년도 2021년 5,029명 대비 243명 늘었다.⁷⁾ 진폐증과 COPD를 앓고 있 는 도내 탄광노동자 대부분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 ⁸⁾